

WHEN THE GLOBAL BREAKS DOWN INTO ENDLESS LOCALITIES.

SASKIA SASSE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Hello, my friends in Korea. My name is Saskia Sassen, the Robert S. Lynd Professor of Sociology at Columbia University in New York.

한국에 계신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스키아 사센이며 뉴욕에 있는 컬럼비아대 사회학 교수입니다.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a part of this meaningful event and share my ideas and thoughts with you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에 참여하여 저의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all regarding the changing capitalism and the future of work.

오늘 우리는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In this short lecture, I will first present my ideas that how we locally respond to this unprecedented period of covid19.

오늘의 짧은 강연에서는 전대미문의 코로나 19 시대 속 지역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Then, I will address three import questions about the future of work.

그리고나서, 노동의 미래에 대한 3 가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This is a peculiar period – a kind of period we did not see coming, a period that has taken us by surprise, and that keeps unsettling us.

우리는 낯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가 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갑자기 찾아온 변화 속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Not too long ago the dominant condition was the opening of more and more countries to a new kind of transnationalism.

얼마전만 하더라도 지배적인 사상은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을 새로운 차원의 초국가주의로 개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But now we confront a global condition that is breaking down into more and more localisms.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당면한 세계적인 상황은 점점 더 지역주의로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There are all sorts of minor and major ele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ll us

현재의 상황을 보면, 여러 크고 작은 요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that the local has gained a new kind of importance, a new set of meanings. 지역적인 것이 새롭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련의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점이지요.

One key actor in this ascendance of the local is Covid-19:

지역적인 가치가 인정을 받게 된 배경에는 코로나 19 도 있습니다.

this silent, invisible presence has shown us its capacity to unsettle life as it used to be.

이 고요한 보이지 않는 존재는 기존의 삶의 방식을 동요시키는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We seem to have entered a new era, one that has installed itself in our daily lives in ways that we did not think could happen in our modernity: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상의 변화가 정착되었습니다.

more time spent enclosed in our homes, a radical stop to global travel, an isolating from friends and urban life.

각자의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해외 여행을 급진적으로 줄이고 도시의 생활과 친구들로부터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One question these unexpected developments raise is whether such transformations could change spatial development.

이런 전례 없는 상황적 변화로 인해 드는 의문점은 이러한 변화가 공간의 변화도 야기할 것인가하는 질문입니다.

For instance, we might wind up with a partial hollowing out of city centers, and the growth of more localized work options in neighborhoods.

예를 들어 도시의 중심부가 일부 공동화 된다거나, 지역사회 중심의 업무 형태가 활성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Thus leisure and shopping patterns that used to concentrate in major cities might branch out to neighborhoods.

즉 일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던 레저 및 쇼핑 형태가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We might see the return of local shops of all sorts. With such changes would also come challenges,

그렇게 되면 지역사회에 다양한 작은 상점들이 돌아올 것이고, 이러한 변화는 또한 일부 어려움도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notably the raising of tax revenue and of existing spending patterns by governments.

대표적으로 세수를 올리는 문제나, 기존의 정부 지출 패턴에도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Under current conditions it is especially the local that we need --and we often need it urgently.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 사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는 꼭 필요합니다.

The local has become the site of the drama and the site of help and hope. 지역사회는 드라마가 있는 곳이며 도움과 희망의 장입니다

The drama is all over us, but what matters for daily life is our condition as community –less as individuals and more as neighborhood.

드라마는 우리 모두의 주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에서 중요한 것은 공동체, 즉 개인이 아닌 이웃입니다.

Whom can I call in a moment of despair when things get worse? My neighbor. 절망의 순간에서 상황이 더 악화될 때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입니다.

There are indeed all sorts of minor and major elements in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ll us that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 크고 작은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the local has gained a new kind of importance, a new set of meanings. 지역적인 것이 새롭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련의 가치로 조명을 받다는 점입니다.

One somewhat ironic outcome is, then, that Covid-19 has brought a kind of novel value to the local.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19가 지역성에 새로운 차원의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Could it be that Covid-19, this most global of pandemics –far more global than all past pandemics we have known– 코로나 19는 가장 세계적인 전염병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세계적 전염병보다 가장 세계적인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might in fact become a major changer of spatial development: hollowing out city centers and localizing far more work in neighborhoods. 그렇다면 코로나 19가 공간 개발을 바꾸는 주요 견인이 될까요? 도시 중심을 공동화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업무를 가능하게 할까요?

This could, in turn, bring a whole new world of leisure and shopping patterns to neighborhoods.

코로나 19 는 지역사회로 새로운 레저와 쇼핑의 패턴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if the neighborhoods, both prosperous and poor, become the sites for work and leisure and shopping,

그리고 부유하거나 부유하지 않은 모든 지역사회가 업무와 레저, 쇼핑의 장이 된다면,

we might succeed in reducing long commutes and the exhaustion that comes with that.

오랜 통근의 시간과 그에 따른 피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Could Covid-19, with all its tragic outcomes also become a major factor in transforming the organizing of our cities:

코로나 19 가 비극적인 상황을 야기시키기도 하지만 도시의 변혁을 일으키는 주요 동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not allowing massive concentrations of most jobs in city centers and the long tiring trips to work that come with that.

대부분의 직장이 밀집되어 있는 도시 중심에서 대규모로 모일 수 없게 되고 그에 따라 장시간 피곤하게 일터로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It would partly hollow out what are now major city centers. But perhaps that is not so bad.

아마도 주요한 도시 중심부에 일부 공동화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꼭 부정적인 것 만은 아닙니다.

Our major city centers are far too big, requiring far too long travel for most middle class and working-class employees.

우리의 주요 도시 중심부들은 과도하게 크고 대부분의 중산층들과 노동계층에게 너무 오랜 시간을 통근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And current spending patterns by governments are increasingly overlooking far too many modest neighborhoods.

그리고 현재 정부의 소비 패턴을 보면 검소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점점 더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We are seeing the emergence of an expanding disregard of the hardships of a majority of workers

우리는 또한 대부분의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경시하는 추세가 확대되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who have longer trips to work and fewer options in their own neighborhoods. 일을 하기 위해 멀리 가야하고 지역사회에서 일할 기회가 점점 더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We would still have great city centers, but of more reasonable and attractive size.

물론 여전히 멋진 도시 중심가는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합당하고 매력적인 정도의 크기로 조정되어야 하겠지요.

One somewhat ironic outcome is, then, that Covid has brought new value to the local.

한가지 아이러니 한 점은 코로나가 지역 사회에 새로운 가치를 가져다 주었다는 점입니다.

Already quite a time before the Corona virus hit, Paris was beginning to emerge as a paragon for a new kind of distributed economy in major cities.

이미 코로나가 강타하기 한참 전부터 파리는 새로운 공유 경제 바람을 선도했고, 주요 도시에서 파리를 모델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It labels itself the “15 minute city,” that is a city where a 15 minute walk can give you access to the basic needs of everyday life.

즉, 15 분 도시라는 이름의 운동인데요.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 15 분 안에 접근 가능한 도시를 일컫는 것입니다.

Today, a rapidly growing number of neighborhoods in Paris pride themselves with providing access to basic daily needs

오늘날 점점 더 많은 파리의 지역사회들이 접근 가능한 곳에서 일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변모하고 있으며,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in, yes, a radius of 15 minutes walks. The aim is that we can walk to more and more of the entities we need access to in our daily lives.

도보 15 분 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일상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도보로 접근하여 이용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In many ways Tokyo impressed me many decades ago with its widely distributed commercial sites –

또한 이미 수십년 전 도쿄에서도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상업 시설이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not one huge center as we see in New York or London, but multiple smaller centers.

뉴욕이나 런던처럼 대형 센터가 아닌 작은 규모의 복합 센터가 있더군요.

More and more cities are beginning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multiple smaller centers.

점점 더 많은 도시들이 작은 규모의 복합 센터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Such more localized work, leisure, and shopping sites could also make a difference in how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s raise taxes

업무와 레저, 쇼핑이 지역사회로 분산되게 되면 지방과 국가 정부가 세금을 걷는 방식도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and could reduce costs associated with driving cars, as well as protect air quality.

자동차 이용에 따른 비용도 줄어들 것이고 공기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challenges such a new set of conditions can bring to the raising of tax revenue

새로운 도전과제들 예를 들어 세수 확대의 문제나

and existing spending patterns by governments are a whole other domain requiring its own expertise.

정부의 기존 지출 패턴 등의 변화는 전문성을 요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논의가 될 것입니다.

The aim would, hopefully, be to achieve a widely distributed combination of elements

이런 과정에서의 목표는 광범위하게 분포된 요소들을 성공적으로 조합시키고

and to take on with gusto the challenges such a society would bring to a) the raising of tax revenue, and b) existing spending patterns by governments.

이러한 사회 형태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 세수 확대나 기존의 정부 지출 형태의 변화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And the outcome would be a proliferation of medium sized neighborhoods thriving with activity

그렇게 된다면, 다양한 활동이 일어나는 중간 규모의 지역사회가 번창하게 될 것입니다.

and ensuring that most of what we need can be reached in a 15 minute walk to the local shops --the new city that Paris is aiming a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파리가 목표로 하고 있듯이 모든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지역에서 15 분내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There are three more questions that I would like to address in this talk.

이 토크에서 발제하고 싶은 3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 'how will the changing capitalism influence the work itself and workers' status in the future?;

변화하는 자본주의가 미래의 노동과 노동자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In many ways “Capitalism” functions as an extractive sector.

여러모로 볼 때 자본주의는 채굴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That is to say, as with mining operations for instance, once extraction has been completed there is zero interest in that mine.

즉, 광산에서 채굴을 완료하고 나면 그 광도에는 아무런 관심도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Compare this mode with a small shop-owner:

이를 지역의 작은 구멍가게 주인들과 비교해봅시다.

he or she will seek to meet the needs of their clients and thus be somewhat interested in them as people

그분들은 손님들의 요구를 맞추려고 노력하고 손님들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who will come back and keep buying, and they will hope that the children of those clients will also come to that shop when they grow up....

왜냐하면 그 손님들은 자주 오는 분들이고 손님들의 자녀 세대도 그 곳에서 자라서 또 자신들의 가게를 찾아줄 것이기 때문이죠.

all in long chain of interactions that benefit both sides.

양측이 모두 혜택을 누리는 장기적인 상호작용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Across time the modes of extraction have changed. I find that one question we need to ask is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굴을 바라보는 시각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까.

whether the current extractive modes we are dealing with are even more effective than was the case in earlier times.

현재의 착취적인 형태가 예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This might contribute to explain the growing concentration of wealth in what has become a rather larger group of beneficiaries than in the past.

이는 부의 집중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은 수혜 계층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But it still amounts to an excess concentration of wealth even if it is now a 20 or 30% of very high income that are very rich rather than the infamous 1%.

물론 1%의 악명높은 부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30%가 고소득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의 집중은 과도한 상황입니다.

A second major issue we confront and need to deal with in our current economies is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당면하고 해결해야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what should be done to diminish the everlasting gender inequality in the labour market in this age of changing capitalism.

변화하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노동 시장의 성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In many countries we are beginning to see women rising to positions for which they were mostly never considered in the recent past.

여러 국가에서 여성들이 예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There is still much change needed. But in a minority of countries we are now approximating parity.

그러나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일부 국가들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성평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The Netherlands, Germany, the Scandinavian countries, to mention some of the best known cases, all have advanced considerably on this front.

네덜란드, 독일,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사례들을 배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And given this advance one would hope that some of the other European countries will soon join them.

이러한 발전을 보았을 때 여러 유럽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선진적인 결과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It should be noted that one major actor in play is new technologies that have unsettled older modes of work.

또한 기존의 노동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새로운 기술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And this may make it A third issue concerns the labor movement in our current phase of changing capitalism or post-covid19 era.

이는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의 노동 운동에 우려를 끼치는 중요한 문제이자 3 번째 논의 주제입니다.

What should be the top priority agenda for Labor?

노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The current period is not an easy one to deal with for labor organizations.

노동 단체들이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It needs to develop capabilities to address intelligently the broad range of novel elements in the economy.

따라서 현 경제 시스템의 새로운 요소들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아우르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One major question is what should labor fight for?

가장 주요한 질문은 노동이 무엇을 위해 투쟁하는가 입니다.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considerably across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insofar as different parts of the what should the labor fight for?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마다 크게 차이가 있을 것이며, 국가 내에서도 지역마다 노동이 투쟁하는 가치는 다를 것입니다.

A third issue concerns the labor movement in our current phase of changing capitalism or post-covid19 era.

이 세번째 문제는 변화하는 자본주의와 포스트 코로나 19 시대에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What should be the top priority agenda for Labor?

그럼, 노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과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The current period is not an easy one to deal with for labor organizations.

노동 단체들이 현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LABOR UNIONS AND THEIR SUPPORTERS need to develop capabilities to address intelligently the broad range of novel elements in the economy.

그러나 노동 조합과 지원단체들은 현 경제의 광범위한 새로운 요소들을 현명하게 아우를 수 있는 역량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One major question is what should labor fight for?

가장 중요한 문제는 노동이 무엇을 위해 투쟁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vary considerably across countries and within countries.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국가마다 그리고 국가 내에서도 매우 상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But in all cases we must fight for the rights of workers.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야만
합니다.

Saskia Sasse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